

시중은행 일제히 성과연봉제 강행

12일 시중은행들 이사회 의결... 금융노조 “모든 대응 방안 논의”... 노사갈등·법적공방 불가피

주요 은행들이 한달 한시에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강행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주권이 이어지자 민간 금융기관인 시중은행들도 금융 공공 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나섰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노조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 은행은 이날 일제히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은행들이 동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건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이슈를 먼저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이 폭발적인 단체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금융위원회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노조는 은행들이 이사회를 개최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금융위로부터 오늘(12일)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워낙 강하니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당국에 보여 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1일에도 “금융권의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은행들은 압박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7월 ‘민간 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영업 실적 등의 성과에 따라 동일 직급 내 연봉 차등 폭을 최대 40%까지 벌리

는 내용이 담겼다.

개별 은행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성과연봉제 체계를 짤 전망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를 유발한다며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과도한 성과 경쟁이 벌어질 경우 직원들이 받는 실적 압박이 커져 불안정관매가 늘어날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당장 은행들이 이사회를 개최한 12일 당일부터 갈등은 격화했다.

이날 금융노조 국민은행·NH농협지부의 노조원들은 행장실을 점거하고 이사회 의결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노사 갈등과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시중은행에 당장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노조는 앞서 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미 9월23일에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금융노조가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쉐보레 ‘볼트EV’ 순수전기차 시대 연다 1회 충전 주행거리 383km 인증완료

내년 상반기 국내 판매 예정

쉐보레(Chevrolet)의 순수전기차 볼트EV(Bolt EV)가 내년 상반기 국내 판매를 앞두고 환경부로부터 383.17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다.

볼트EV는 현존하는 양산 전기차 중 내연 기관을 대체할 장거리 주행 능력과 첨단 커넥티비티 기술을 대폭 도입해 실용적이면서도 개인화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올 연말 미국 시장 판매를 앞두고 볼트EV는 모터 트렌드(Motor Trend) 2017 올해의 차, 그린카 저널(Green Car Journal) 2017 올해의 친환경차,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 2017 베스트 자동차 TOP 10에 선정되며 친환경차 부

문을 포함한 제품력과 상품성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고용량 전기 모터에 기반한 전통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한 쉐보레 볼트EV는 전기차 전용으로 설계한 차체에 고효율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을 결합해 한 번 충전으로 기존 전기차의 두 배 이상이라는 획기적인 주행거리와 더불어, 200마력에 달하는 최고출력과 36.7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또한, 쉐보레 최초로 볼트EV에 적용된 전자정밀 변속 시스템이 기존에 기계적으로 전달되던 변속 신호를 전자 방식으로 대체해 정밀한 주행감과 동력 전달을 실현하는 한편, 모듈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해 한층 넓은 실내 공간 확보에 기여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KT “글로벌 5G 시장 점유율 2026년 20% 달성” ‘평창 5G 기자간담회’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 봅슬레이 경기 장면 선보여 360도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미디어 서비스 제시 2018년 2월 9일 5G 시범 서비스 공개 예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인 KT가 오는 2026년까지 글로벌 5G 시장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이란 글로벌 이벤트를 기점으로 5G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범국가 차원에서 5G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5G는 LTE보다 속도 빠르고 생생한 화질을 구현한다.

KT는 13일 오전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세계 최초 평창 5G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평창 5G 시범서비스 성공을 향한 경과를 밝혔다. KT는 2026년까지 글로벌 5G 시장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KT는 현장(필드)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며 5G 기반으로 동계스포츠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360도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의 미디어 서비스를 제시했다.

먼저 KT는 5G 관련 기술특허만 60여 건을 출원·획득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KT는 2017년 9월까지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위한 최

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5G 시범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는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을 중심으로 서울 일부 지역까지 꾸려진다. 이어 4~5개월에 걸친 안정화를 거쳐 2018년 2월 9일 5G 시범 서비스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KT는 지난 10월부터 5G 각종 장비와 5G 통신 기술 ‘평창 5G 규격’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5G 테스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KT는 빌딩 안에서 2.3Gbps 무선 다운로드 속도 구현에 성공했다.

한편 KT는 2018년 평창에서 선보일 수 있는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도 공개했다. 이날 KT는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가 적용된 봅슬레이 경기 장면을 선보였다.

KT는 봅슬레이 장비에 초소형 5G 무선 카메라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봅슬레이를 생중계하는데 성공했다. 일명 ‘싱크뷰’ 서비스를 활용하면 선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생동감 넘치는 슬라이딩을 시청자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다만 봅슬레이와 선수 복장 등에 통신기기를 부착하려면 올림픽조직위와 해당 선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성욱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세계 최초 평창 5G 기자간담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와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 KT는 필드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5G 기반 동계스포츠 미디어서비스를 소개했다.

오성욱 KT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은 “올림픽주관방송사(OBS)와 협의를 하고 있다. OBS가 정해주는 위치에서 기기를 부착하는 등 유관 부서와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T가 5G 서비스의 국제 표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경쟁사와 힘을 모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부사장은 “현재로서 여러 회사가 개별로 (5G 상용화 준비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KT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며 “국내 사업자를 포함해 글로벌 기업들과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5G 디바이스 개발에 화웨이 장비가 도입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종 결정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2018년 평창 올림픽 개최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기존에 있는 제조사와 단말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어느 벤더(vendor)와 협업할 지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카드사 소멸 포인트, 사회공헌에 쓰인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설립 예정... 기부금 출연규모 ‘쟁쟁’

카드사의 소멸 포인트를 기부받아 영세기맹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공헌재단이 설립된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연내 설립을 목표로 기부금관리재단을 세워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여신금융권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설립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은 여신협회는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카드사는 재단에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과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뉴시스

고객의 묶이었던 포인트와 선불카드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유로 카드사가 낙전수입으로 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멸된 신용카드사 포인트는 3460억원에 달한다.

여신협회는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서민금융과 영세기맹점 지원,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점은 카드사의 기부금 출연규모다. 현재 카드사별 소멸포인트 운영 방식과 포인트 환산방식이 달라 절충점을 찾고 있다. 포인트 적립률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데다 롯데카드처럼 아예 소멸시효가 없는 카드사도 있어서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